

# 멸종위기종 ‘착생깃산호’ 여수 거문도 앞바다에 최대 서식

산호층강에 속하는 고착성 해양생물 1996년 이후 발견 기록 없는 희귀종 다도해국립공원, 30군체 이상 확인 특별보호구역 지정 추진 나서

**?** 고착성 생물 이동을 하지 않고 암반, 바위 또는 다른 생물에 부착해 서식하는 생물로, 미역·다시마 등 해조류와 해변동물·대형동물·산호류·말미잘·따개비 등 동물이 해당된다.



멸종위기종인 ‘착생깃산호’.



수심 50m 착생깃산호 생태 모습.

(국립공원공단 제공)

여수 거문도 일대에서 멸종위기종인 ‘착생깃산호’의 국내 최대 서식지가 확인됐다.

6일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거문도·백도지구에서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 ‘착생깃산호’ 30군체 이상이 서식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국내 최대 규모다.

공단은 앞서 지난해 8월 해상국립공원 멸종위기야생생물 분포 조사때 거문도·백도지구에서 착생깃산호 일부 개체의 서식을 확인했다. 이어 지난해 추가 조사를 통해 거문도·백도지구 해역 50m, 수심 20㎡ 범위에서 30군체 이상이 서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착생깃산호’는 자포동물문 산호층강에 속하는 고착성 해양생물로, 제주도와 남해안 매물도 수심 50~100m 암반에 제한적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락을 이루고 내·외부 공생 종이 많아 생태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4년 교육부에서 발간한 ‘한국동식물도감’ (제39권 동물편/산호층류)에는 1978년 제주도에서 4군체, 1996년 한려해상 매물도에서 6군체가 발견된 기록만 있어, 국내에서는 매우 희귀한 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일본의 사가미

만, 미사키, 오키노 등지에 분포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착생깃산호 서식지 보전을 위해 이들의 서식 환경과 생태 특성을 파악할 계획이다. 또 이들 서식지에 대해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지

정도 추진한다. 오장근 국립공원연구원장은 “해양생물 다양성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착생깃산호의 신규 서식지 발견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멸종위기야생생물의 생태

연구를 기반으로 서식지를 보존·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 지리산엔 멸종위기 수달·삵·원앙 함께 산다

무인센서 카메라에 찍혀 담비 등 야생동물 지속 관찰 생태계 건강성 우수 입증



멸종위기야생동물 Ⅱ급 삵.



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가 지리산 생태계 조사 중 무인센서 카메라로 멸종위기야생동물 Ⅰ급 수달과 Ⅱ급 원앙이 함께 서식하는 모습을 촬영했다. (지리산국립공원 제공)

멸종위기야생동물 Ⅱ급 담비, 삵 등이 야생생물 보호단의 모니터링에 의해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는 것은 지리산이 생태계의 건강성이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전남사무소 관계자는 설명했다. 지리산은 야생동물의 서식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박선홍 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야생동물의 중요한 서식처인 지리산국립공원의 생태계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조사와 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 신안 가거도 자생 ‘새끼노루귀’ 개화

해발 350m 이상서 자라는 희귀식물 새로운 종 가능성에 표본 확보 방침 학계에 ‘가거새끼노루귀’로 보고하기로



신안 가거도에서 자생하는 ‘새끼노루귀’.

신안 가거도에서 자생하는 희귀식물 ‘새끼노루귀’가 꽃을 피웠다.

6일 신안군에 따르면 국토 최서남단이자 생물권 보전지역인 흑산면 가거도에서 자생하고 있는 새끼노루귀의 개화가 확인됐다.

새끼노루귀는 해발 350m 이상 지역의 낙엽수림 하단부의 그늘과 비옥한 토양 및 배수가 양호한 토양에서 잘 자란다. 신안에서는 가장 높은 독실산(639m)이 있는 가거도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중도와 신의도에는 같은 과 식물인 노루귀가 분포한다.

새끼노루귀는 마나리아재비과 여러해살이 풀로, 뿌리는 비스듬하게 자라고 마디가 많으며 검은 빛의 수염뿌리가 달린다. 잎은 뿌리에서 뭉쳐나고 표면은 짙은 초록색에 흰색 무늬가 있으며, 양면에 털이 나 있다. 꽃은 3~4월에 잎보다 먼저 나오는데 흰색이고 줄기 끝에 1개의 꽃이 하늘을 향해 핀다.

새끼노루귀는 잎 뒷면도 꽃자루처럼 털이 많아 지면서 조금 뒤로 말려있는 모습이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잎은 새끼노루의 귀를 닮아 있어 새끼노루귀라는 이름을 얻었다.

노루귀 종류에는 새끼노루귀 외에도 한반도 전역에 자라는 노루귀와 울릉도에 자생하는 섬노루귀가 있다.

새끼노루귀는 제주도와 남해안 일대의 섬에 자란다고 식물도감에 기록돼 있지만 좀 더 북쪽인 변

산반도 등 중부지방 풍도에 있는 것도 새끼노루귀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다.

신안군은 가거도에 피는 것은 새끼노루귀와 생김새는 같으나 새로운 종이라는 의견이 있어 향후 자생지 확인과 증거표본을 확보해 학계에 ‘가거새끼노루귀’로 보고할 계획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신안 섬지역의 자생식물과 자생식생, 주요 생태계 정밀조사 등을 통해 자연과 생태환경을 가꾸고 보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모던 스타일** Modern



**클래식 스타일** Classic



**지중해 스타일** Mediterranean Sea





문의 상담 062) 945-0036~7